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MC 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고객을 향한 단 하나의 진심!

BNK 부산은행

제1436호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수노아파 단순가입’ MZ조폭들 집행유예 등 선처…“기회 주겠다”



수노아파 조직원 단합대회

법원이 서울 도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

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를 가운데 단순 가입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명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모두에게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

**폭력단체 가입만도 심각한 범죄…주변 실망시키지 말아야
구치소서 조직 가입 권유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

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 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며 “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퇴직했는데, 주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이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운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부분 짧은 머리에 어두운 색깔 외투 차림이었고, 일부는 귀 뒤로 문신이 보였다. 이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달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송원기 기자

조지호 신임 서울청장 “총선 돌출상황·불법행위 없도록 역할”

조지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여러 경비현장에서 돌출 상황이 없도록 관리하고 불법행위 없도록 감시·수사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 없이 이날 오전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대비 계획을 묻는 말에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앞으로 서울청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국민’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내부를 바라보는 내부 중심적 시각이 많

아져 우려 섞인 지적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 추진 방향의 관점은 철저히 국민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국민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서울청의 법 집행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 법 집행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상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돼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받는 급여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112신고 통계를 보면 국민 1명당 평균 신고는 2년 반에 1번꼴로 들어오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하루 10~20건이다 보니 많다고 생각한다”

며 “이런 온도 차를 줄여야 하는데 국민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할 수 없으니 경찰이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기획 부서에서 주로 근무한 ‘기획통’으로 분류돼 서울청장으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기본적으로 경찰에 대한 이해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잘 감당할 것”이라며 “서울경찰의 정책만 이야기하지 않고 집행이 국민 관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 이뤄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 김성재 기자

검찰, KIA 김종국 감독·장정석 前단장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KBO 수사 의뢰한 ‘박동원 선수 뒷돈 요구’ 외 추가 혐의 포착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 감독과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배임수재는 업무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이다.

검찰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수사 의뢰한 장 전 단장의 ‘선수 뒷돈 요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앞서 KBO는 장 전 단장이 협상 과정에서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뒷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지난해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30일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동원에 대한 뒷돈 요구 외에 장 전 단장의 다른 범죄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감독에 대해서도 선수 입단과는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를 발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혐의는 최근 독립야구단 고위 간부가 프로야구단 입단을 미끼로 고

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도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김 감독에 앞서 1983년 삼미 슈퍼스타즈의 고(故) 김진영 감독이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례가 있다. KIA 구단은 지난 28일 김 감독의 직무를 정지했다.

구단은 25일 제보로 김 감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면담을 거쳐 이를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 조정훈 기자

‘디지털문맹’ 없도록…시골 찾아가
배달앱·SNS 사용법 알려준다

교육부,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추진

정부가 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달·쇼핑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포함한 성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4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9일 공개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해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4.5%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2006년부터 문해교육을 지원해왔다.

비대면·디지털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400개가

/ 이현주 기자

**우리 농축산물로
새해 복 받으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우리 농축산물로 귀함을 선물하세요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공직자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30만원)

* 적용 기간 : 2024.1.17(수) ~ 2.15(목) / 30일간
* 부모·형제·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NH 농협

‘일요일 정상영업’ 서초구 대형마트…시민들 “편하고 좋아요”

마트 노동자들은 ‘울상’…“이제 또 일요일 없이 일해야”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닫혔던 서울 서초구 대형마트의 문이 1월 둘째 주 일요일인 28일 활짝 열렸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면서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은 활기가 넘쳤다. 건물 외부부터 지하 1층에 있는 이마트로 향하는 내부 곳곳에는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손님을 맞이하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기념 물티슈와 할인쿠폰을 건네기도 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온 손님들은 카트를 끌며 두루마리 휴지 등 생필품과 고기·과일·과자 등 먹거리들 카트에 담았다.

손님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마트 양재점을 찾은 김진희(32)·원관호(37) 부부는 “토요일은 대부분 약속이 많아 장을 보기 어렵다. 일요일은 쉬면서 산책도 할 겸 마트에 오기 편한데 이제 매주 문을 연다니 좋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은 금하게 사야 할 것이 있을 때 마트가 문을 닫아 불편했던 적이 많았다”며 “오늘은 집 청소를 하다 밀대가 고장 났는데 바로 사러 올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걸려 이마트 양재점을 찾았다는 A(77)씨는 “역삼점도 오늘 운영을 하는 줄 알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 구호 외치는 마트노조 조합원

고 갔다가 헛걸음했다”며 “우리 같은 노인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기 어려우니 서초구 말고 다른 대형마트들도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둘째·넷째 일요일 대신 월요일로 휴업 일이 바뀐 서초구 잠원동 대형마트 킴스 클럽에도 유모차를 끌거나 카트에 아이를 태우고 가족 단위로장을 보러 오는 발길이 이어졌다.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마트를 찾은 이성연(38)·황정(33) 부부는 “주말에 이렇게 낮부터 장을 보니 재고가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정상영업으로 골목 상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부부는 “전통시장은 주차가 번거로워 잘 찾지 않는다. 마트가 일요일에 쉬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속상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약 20년간 대형마트에서 일했다는 한 노동자는 “그동안 의무휴업 덕에 주말에 쉬어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니 얼떨떨하다”며 “주말에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불만스럽지만 방법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13년째 마트에서 일해왔다는 김모(55)씨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도 늘고 영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직원들은 이제 일요일이 없어지니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주말에 쉬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연차를 사용해야겠지만 그것마저 눈치가 보일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도입됐으나 그동안 그 효과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던 끝에 최근 폐지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다.

서초구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동대문구도 내달부터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휴업하기로 하는 등 다른 자치구들도 동참할지 주목된다.

정부 또한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급격한 성장으로 골목상권 보호 등 규제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판단에서다.

/ 최수진 기자



7일 광주 북구 본동 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구청 기후환경과 공무원과 북부경찰서 순찰대원들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협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귀성길 휴게소·전통시장 화장실

일제점검…불법카메라 단속도

설 명절에 이용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상가 밀집지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까지 전국 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벨·불법카메라 점검 등을 통한 범죄·안전사고 예방,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이행, 공중화장실 확충 및 여성 화장실 부족 해소를 위한 탄력적 시설 운영,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 청결 강화 등이다.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거치대 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개방 등을 통해 746개 더 확충한다.

현재 남성 화장실은 5천621개, 여성은 7천133개다. 이번 임시 조치로 남성은 267개, 여성은 479개가 각각 늘어난다.

이에 더해 진영(부산)휴게소 등 66곳에는 여성용 가변형 화장실 408칸을 추가로 운영한다. 가변형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일부를 여성화장실로 일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거치대 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중화장실 이용이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마약재활센터 전국 확장 시동…“인프라 연계·계획 구체화 필요”

다음달 인천부터 개소…연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대전 동구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현판식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셸 넷번 사마리탄 데이타پ 빌리지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예방·재활 인프라와의 연계, 마약 전문 지식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제공 여부가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음 달 인천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수원, 강릉에 마약 중독재활센터가 문을 연다. 인천 센터는 현재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식약처는 14개 지역 센터를 9월까지 모두 개소할 계획이다.

권근현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장은 연합뉴스에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곳을 일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재활 수요 등을 고려해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14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되면, 전국 센터는 총 17개로 늘어난다.

권 팀장은 “14개 센터에도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예방·재활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가들은 정량적인 인프라 증가도 중요하지만,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기존 프로그램 간 실효성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 마약 재활 센터인 경기도 다르크(DARC) 임상현 센터장은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의 한계를 지적했다.

임 센터장은 “중독자들이 밤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긴 하지만, 중독자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 인력이 마약 중독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마약 중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민간 치료 기관과 교류하며 시스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활은 일차적으로 중독 치료가 이뤄진 사람들이 단약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필요한 것”이라며 “의료기관과 기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 지부, 다르크의 주거 시설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모델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조직을 키운다고 마약 사범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며 “중독 재활의 실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전문 상담 인력 확보를 통해 마약류 중독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 재활센터 연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사 및 강사 인증제를 추진해 상담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식약처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중독 상담’을 통해 청소년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개인 맞춤형 재활서비스’에 따라 중독 수준을 평가해 단계별로 강화, 가족·미술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송진영 기자

이준석 “여성도 軍복무해야 경찰관·소방관 지원 가능하게”

‘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간부·부사관 아닌 일반병사 근무”



개혁신당 정책발표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 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마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엔 “어떤 부분이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스라엘 모델도 연구했지만, 출산과 병역을 연계하는 순간 젠더 이슈가 될 가능성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또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경기도 파주의 기숙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한민고를 추가 설치하고, 동일한 중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 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관할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 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윤성 기자

與 권은희, 탈당 선언…“다당제 꿈꿨지만 양당정치 회귀”

**김근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비례 승계**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29일 탈당을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3정당 정치인으로서 다당제 정치 구조에서 국민의 일상과 미래가 이념과 기득권을 이기는 정치를 꿈꿨다”며 “하지만 제3지대가 이뤄낸 작은 성과조차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시 양당 정치현실로 회귀하는 쓰디쓴 좌절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총선 출마 지역구와 관련해 “광

주 광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제3지대’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과 가칭 개혁미래당이 종선 이후에도 제3지대의 뿌리를 내려 정말 정치의 변화를 이뤄낼 강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묻는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2022년 양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당적을 갖게 된 권 의원은 비례대표여서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김근태 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한다.

/ 박소희 기자

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정부, 이태원법 거부 예상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태원 참사 책임과 진상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발언에 대해선 “신중히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인도주의적·재정적 차원으로만 제한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자유세계 일원으로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상황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북풍·총풍’ 사건이 떠올랐다”며 “안보와 국민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해당 초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송원기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선언…임종석과 대결 성사될까

“미래 서울 중심축에 586 구태·당대표 방탄 돌격병 안 어울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28일 4·10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역구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흥의원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서울 서초을 도전을 선언한 뒤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정신은 ‘꺾데기는 가리’이다. 우리 정치의 모든 꺾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며 “국민들이 다시 정치의 순기능만 믿고 화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 알맹이들로 정치 물갈이를 해낼 것인지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주류인 ‘86’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임 전 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86은 1980년대 학번이면서 1960년 대생으로 재학 시절 학생운동권을 거쳐 정치권에 대거 진출한 집단을 일컫는 용어다.



난도질하는 게 꺾데기, 국가가 돈만 풀면 잘 살 수 있다며 미래세대의 자산까지 끌어와 털어먹는 기만이 꺾데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구·성동갑에 대해 “미래 서울의 중심축으로 부상해 강북 시대를 열어야 할 곳”이라며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 대표 방탄 2차전을 보좌할 돌격병 후보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민주당 주류인 ‘86’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임 전 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86은 1980년대 학번이면서 1960년 대생으로 재학 시절 학생운동권을 거쳐 정치권에 대거 진출한 집단을 일컫는 용어다.

윤 전 의원은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천이 끝나면 전국 250명 선수가 사력을 다해 민심을 얻기 위해 뛸 것”이라며 “선수들을 위해 대통령실과 우리 당이 민심에 가장 잘 반응하고 겸허한 해법을 내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당내 경제통으로 활약하다 ‘저는 임자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로 이름을 알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2021년 8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 지역구는 지난달 진수희 전 당협위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직전 당협위원장 불출마 지역은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권정석 기자

野 탈당파 신당-이낙연 신당 통합…“개혁미래당” 공동 창당



‘새로운미래’가 단일 정당으로 통합한다.

양측은 공동 창당에 합의하고 다음 달 4일 가칭 ‘개혁미래당’ 이란 이름으로 중앙당 청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득권 혐과와 정치 혁신, 사회 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고자 공동 창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혁미래당 가칭에 대해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강형민 기자

김진욱 이어 여운국도 퇴임…공수처 ‘지휘부 공백’ 현실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추천위, 내달 7차 회의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8일 퇴임한다.

‘공수처 1기’ 처·차장이 9일 간격으로 모두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 상황이 더 커진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1년 1월 29일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지난 19일 김 전 차장 퇴임에 이어 여 차장까지 공수처를 떠나면서 처·차장의 업무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2·연수원 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할 예정이다.

대등한 위치의 일선 수사부장이 각각



답변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처·차장 업무를 맡음에 따라 결재라인 등 업무 분장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책임 범위도 모호해져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등한 위치의 일선 수사부장이 각각

10대 여친 흥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접근금지 조치 어기고 주거침입도 2심도 징역 10개월 선고

10대 연인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재판 받던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횡성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B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나 B양의 얼굴을 때리고 흥기

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달 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고 연락하거나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틈을 타 B양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 안성준 기자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해임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월 전 벤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나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이 전 기자)가 이월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혐기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작년 10월 이 전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 김성균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서 7세아 상해 입힌

유치원 직원…벌금 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남희경 기자

고령에 장기 독거도…귀환납북자 위기 감지체계 구축 나서



재생존한 6명은 모두 80대 고령이다.

그 중 3명은 북한에서 이룬 가족을 남겨둔 채 탈북했으며, 이들 중 2명은 남쪽 가족과도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귀환 납북자들은 납북과 장기 억류, 탈북 과정, 가족과 이별을 겪으며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고령으로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라며 “그들의 위기 징후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귀환 납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담당 사회복지사 6명을 초청해 귀환 납북자 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위기 징후 정보를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가 어떻게 숨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에 귀환 납북자의 위기 징후 감지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26일 통일부와 전후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탈출해 귀환한 전후 납북자 9명 가운데 현

/ 정수찬 기자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개인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종
다액 이하
-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사우스캐롤라이나 출격 바이든, 예전같지 않은 집도끼 흑인 공략

지난 대선 ‘몰표’ 준 흑인 유권자 열기 ‘시들’에 공들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현지 민주당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11월 대선 본선에서는 이곳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1976년 이래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곳을 찾은 것은 흑인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흑인 유권자의 지지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기가 예전과 같지 않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려를 안기고 있다.

지난달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

센터(NORC) 여론조사에서는 흑인 성인 50%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2021년 7월에는 그 비율이 86%에 달했다.

흑인과 라틴계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바이든 캠프가 더 우려하는 것은 투표율 하락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캠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유권자 사이를 파고들 메시지와 플랫폼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하나의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유권자 다수가 흑인이다. 바이든 캠프는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흑인 유권자의 열의를 높일만한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강조하는 TV 광고도 하고 있다.

/ 최형준 기자



말레이시아 동물원의 판다

말레이, ‘中귀환 임박’ 판다 임대연장 추진

“시진핑과 상의할것”

2014년 ‘수교 40주년 기념’

판다 2마리 10년 임대…올해 만료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 귀환이 임박한 판다의 임대 연장을 중국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현지매체 더스타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는 국립동물원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중국에서 임대 중인 판다 두 마리의 임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와르 총리는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과 판다가 말레이시아에 더 있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5개 월 동안 반군 토벌에 나서면서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백도영 기자

넘해 말레이시아에 판다 부부 싱싱과 량량을 10년간 장기 임대했다. 올해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곧 귀환 시기가 된다.

싱싱과 량량은 말레이시아에서 2015년, 2018년, 2021년에 걸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중국 정부가 판다를 임대하면서 ‘새끼는 두 살이 되면 중국으로 보낸다’는 조건을 붙여 새끼들은 모두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푸바오와 마찬가지로 국립동물원의 판다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안와르 총리는 판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는 “우리는 판다 임대 비용은 내지 않고 관리비만 부담한다”며 “판다를 보러 중국에 갈 여유가 없는 많은 사람에게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말레이시아인들에게는 이곳에서 판다를 보는 것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도 했다.

/ 한명호 기자

필리핀군, ‘미사 폭탄테러’ 용의자 등

이슬람무장단체 9명 사살

필리핀군이 지난달 가톨릭 미사 도중 발생한 폭탄테러 용의자 2명을 포함한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9명을 사살했다.

2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군은 남부 민다나오섬 라나오델수르 주에서 지난 25~26일 대테러 작전을 벌였다고 전날 밝혔다.

사망자들은 필리핀 남부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다룰라 이슬라마이(DI) 소속이며, 달아난 조직원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사망자 중 2명은 지난달 3일 라나오델수르주 마라위시 민다나오주립대 체육관에서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테러 용의자다. 당시 체육관에서 있었던 가톨릭

미사 도중 폭탄이 터져 4명이 숨지고 54

명이 다쳤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는 사건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병사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폭탄을 터뜨렸다”면서 배후를 자처한 바 있다.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합참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작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총격전 도중 필리핀군 4명이 부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당국은

전했다.

체육관 폭탄 테러가 발생한 마라위시는 필리핀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도시로 과거에 이슬람 무장단체가 점령했던 지역이다.

지난 2017년 5월 IS를 주종하는 무장단체인 마우테가 마라위시를 점령했다.

당시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5개 월 동안 반군 토벌에 나서면서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 백도영 기자

美, ‘北도발·북러밀착-후티 홍해 공격’ 中에 영향력 행사 요청

설리번, 中왕이에 北무기실험·북러협력 우려 제기…“비핵화 대화 재개 영향력 사용해달라”

미국이 26~27일(현지시간) 방콕에서 열린 중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전날부터 이를간 총 12시간에 걸쳐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외교부장 겸직) 간의 방콕 회동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양측은 북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는 최근 북한의 무기 테스트와 북러 관계 증진, 그리고 그것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무기 테스트는 최근 북한이 발표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첫 시험 발사와 수중 핵무기 체계 시험 등을, 북러 관계 증진은 북한의 대 러시아 탄도 미사일 및 탄

약 공급과 양국 간 고위급 인사 왕래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이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해 우리는 이런 우려를 중국에 직접 제기했으며, 양측 대표 간에 이런 대화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위 당국자는 쏜웨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북한에 파견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 측 대표와 쌈 부부장 간의 전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분명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 영향력을 (북한) 비핵화의 경로로 우리를 복귀시키는 데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부장에 중동 내 긴장 완화를 위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도 요청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이란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국제 물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지금까지 중동 긴장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건 맞는다면서도, 후티 문제 등과 관련해 이란을 외교적으로 압박한 바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후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이란의 최대 교역국이었으며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 크플러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이 생산한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 정유사가 구입했다.

/ 서정숙 기자

노토강진 여파…日각료, ‘오사카 엑스포 연기 검토’ 총리에 간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일본 각료 중 한명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성이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2025년 오사카·간사이 이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의 연기 검토를 진언했다고 일본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전날

나가노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는 당시 기시다 총리에게 노토(能登)반도 지진 피해 대응에 필요한 일손과 자재가 부족해 건설업계에서 엑스포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연기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기시다 총리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A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현지 각료가 엑스포 연기를 언급한 것은 아예적”이라며 “26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노토반도 강진 이후 박람회 연기론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내년 4월 개막을 위해 관계자가 일체가 돼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며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밝힌 바 있다.

/ 오정민 기자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move



작품명 Move Forward

Energy Saving이라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SK엔무브의 그린피처

KB금융그룹 | 국민의 편지상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한 명쯤은****알면
좋잖아요****이제, 내 투자에도 맡는 구석이 생길게!****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 톡으로 뚝딱!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업점 개설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출금되며,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프라임클럽 매월 1종목 증정 이벤트' 공지 참조)*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KB증권

‘탈원전 자금난’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2%대 저리 금융지원

산업부, 1천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내달 15일까지 접수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정부 예산으로 2%대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제공 금리는 2.25%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 등을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



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천서를 받은 기업은 시중 7개 은행(우리·하나·신

한·산업·기업·기업·부산은행)을 통해 대출 심사 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자력산업협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원자력산업협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이 최근 원전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 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려는 원전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수북이 쌓인 명절 택배

설맞아 4주간 ‘택배 특별관리기간’

임시인력 5천300명 더 투입

국토교통부는 설을 맞아 택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관리기간에는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

년 추석부터 명절마다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해 왔다.

올해 설을 앞두고서는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이 1천730만박스로 평소보다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주요 택배사들은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1천300명, 상하차·분류인력 2천명, 배송기사 1천200명, 동승인력 800명 등

임시 인력 약 5천300명을 추가로 투입 한다.

택배사들은 또 연휴 하루 이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 기간 휴식을 보장할 예정이다.

영업점별로는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을 미리 주문한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규한 기자

농식품부, 설 앞두고 ‘소프라이즈’…한우 최대 반값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함께 한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는 ‘소프라이즈’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홈플러스,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온라인 한우장터 등 29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장, 쇼핑몰 등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판매 가격은 1등급 등심은 100g 기준 8천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천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천20원 이하 등이다.

행사 기간과 품목은 매장별로 다르다.

김정우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 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물가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호성 기자

AI폰 갤럭시 S24도 더 싸질까…정부 압박에 통신업계 ‘고심’

최대 20만원대 초반 공시지원금, 이르면 30일께 상향 가능성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압박에 정식 출시를 코앞에 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실구매가가 낮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사전예약 마감 직후인 지난 26일 최대 20만원대 초반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으나, 이번 주 출시를 전후해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SK텔레콤은 10만~20만원, KT는 5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5만2천~2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각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사전예약 첫 날인 지난 19일 예고한 공시지원금(10만~17만원)보다 최대 3만원을 올려 가장 먼저 지원금 상향에 나섰다.

이미 공표한 공시지원금을 출시하기도 전에 조정하는 것은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검토 배경에 정부의 정책적 압

박이 자리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확정 직전인 지난 24~25일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을 차례로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발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확대를 결정할 경우 이르면 출시 전날인 오는 30

일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의 ‘지원금 공시 및 계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고시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공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막판 지원금 확대에 대해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정부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진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구형 모델이 덜 팔려 재고로 쌓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제조사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통상 10%대라는 점에서 손해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지원금 상향 폭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번 주에도 각 사 고위급 임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져 어떤 식으로든 지원금 확대 등 실질적인 구입 부담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통신 3사는 제휴카드 할인과 중고 휴대전화 보상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 진성훈 기자

‘세뱃돈도 모바일로’

CU, 선불충전서비스 설맞이 프로모션



으로 1천명의 해당 자녀에게 CU머니 5천 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세뱃돈은 이벤트 종료 후 일괄 지급한다.

다음 달 한 달간 냉장 디저트 전 상품을 CU머니로 결제하면 50%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CU머니는 CU의 커머스앱인 ‘포켓CU’의 모바일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서비스로, 현재 1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 가족이 공동으로 가입해 쓰는 ‘패밀리 기능’이 있어 10대 이용자 비중이 25%에 달한다.

CU머니를 이용하는 부모(그룹장)가 멤버로 설정한 20세 미만 자녀에게 5천원 이상의 CU머니를 송금하면 CU가 선착순

/ 권현준 기자

건설이 만든 금융*

www.cgbest.co.kr

대한민국 건설산업 더 높이, 더 멀리

건설의 끝은 행복하게
건설의 시작과 끝,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건설을 바꿉니다. 일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내일을 보증합니다

Moody's A2
Fitch Ratings A
A.M. Best A+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버팀목

건설공체조합은 지난 59년간 국민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시설부터 주택·공장·오피스빌딩 등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삶의 터전이 적기에 안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건설보증과 공체(보험)사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상담 1588-1444

공체 기입문의 02-3449-8946 건설화관 임대문의 02-3449-8686

건설설계연수원 043-850-4523 세종필드골프클럽 044-861-5678

CC 건설공체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당신의 경험이
최고의 경력

삼성생명 GFC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움직여 본 경험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이끌어 본 경험
위기에 맞서 헤쳐나갔던 경험

경력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의 경험으로 답하세요

삼성생명 GFC에 지원하세요



삼성생명 GFC(Group Financial Consultant)는
단체보험 컨설팅으로 기업복지를 증진시키고
임직원 보장/은퇴설계를 제안하는 기업보험 전문 컨설팅입니다

본 광고는 임직원 채용이 아닌 컨설팅 모집용 광고임

준법감시필 23-2320호 (브랜드광고파트, 2023.10.17~2024.10.16)

“설 명절 부담 덜자” 전국 지자체, 물가안정·할인대책 풍성

지역화폐 발행 확대하고 할인율 높여…농특산품 할인 행사도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 28만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물가 속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역화폐 한도액이나 할인율을 높였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설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화폐를 판매한다. 평소 할인율은 6%다.

강원 평창군은 평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월 한 달간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했고, 정선군은 2월 한 달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와와페이’의 월 할인 구매 한도를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상품권 할인율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옥천군도 같은 기간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린다.

충남 보령시는 다음 달 한 달간 전통시장에서 모바일 보령사랑상품권을 쓰면 10%를 추가 환급받는 행사를 한

다. 평소에는 5%만 환급된다.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할인행사도 잇따라 열린다.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는 설을 맞아 다음 달 13일까지 기획 할인전을 한다. 단일 품목 20개 이상 대량 주문 시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하고, 소고기·삼겹살 등 20여개 인기 상품은 중복으로 할인하는 등 신선식품, 가공식품, 전통 주류 등 380여가지 설 명절 인기 상품을 최대 30% 할인해 판매한다.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농사랑’과 전북 특별자치도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경남도의 ‘e경남몰’에서도 특별 할인행사가 열린다.

경남도는 다음 달 1일과 8일 부산시와 협업해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 사잇길에서 장터를 연다.

부산시는 설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과일 등 성수 품 공급을 늘리고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 이벤트, 15~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또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지도도 병행해 명절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향길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숙박·운임 할인 행사도 펼쳐진다. 인천시 응진군은 올해 설 연휴 섬 지역 고향을 찾는 귀향객을 위해 연안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운임 지원 기간은 설 연휴인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이 기간 인천 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도를 찾는 귀향객들은 여객선 운임의 80%와 터미널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야놀자와 ‘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숙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설 연휴부터 2주간 숙박 할인 행사를 하는 등 야놀자 플랫폼과 숙박, 레저, 교통 등 다양한 관광 분야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관내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해 겨울 비수기 관광객을 유도할 방침이다.

/ 송유영 기자



강원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서 열린 ‘2024 평창 대관령 알몸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대관령 칼바람쯤이야”

영하 12도에 열린 알몸 마라톤대회

해발 800m 안팎의 대관령은 국내에서 주위의 대명사다. 눈 쌓인 대관령은 겨울왕국이다. 날이 풀리기는 했지만 28일 대관령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였다. 그런 날씨에도 웃옷을 벗고 알몸으로 대관령 주위에 맞서며 달리는 이색 마라톤대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2024 평창 대관령 알몸 마라톤대회’가 이날 대관령 일원에서 남녀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5km와 10km 코스의 이번 대회에서 남자는 상의를 탈의해야 하고, 여자는 민소매나 반소매 티를 반드시 입어야 했다.

며칠 전 내린 폭설이 계속된 추위에 그대로 남아 있어 코스 주변은 운동 드레스 상이었다. 출발하기 전 참가자 중 일부는 비닐로 몸을 감싸고 추위를 견디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라토너는 주변을 달리며 추위에 맞서기 위해 몸을 충분히 예열하느라 바빴다.

이때 만난 70대 후반의 노부부는 “좀 춥긴 하지만 신나는 음악을 틀어 놓고 부부가 함께 재미있고 즐겁게 달리겠다”며 “벌써 이번 대회에만 6~7번이나 단골로 참여했으니 걱정없다”고 자랑했다.

오전 11시 출발을 알리는 종성이 울리고 큰 함성과 함께 참가자들이 대관령 일원을 향해 일제히 뛰어나갔다.

상의를 탈의한 몸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쓰고 하트(♥)나 ‘사랑해’라는 글씨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참가자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파이팅’ ‘철인’ ‘만사형통’ 등 스스로 다짐이나 바람을 기원하는 문구나 자신이 속한 직장이나 마라톤 클럽, 고향의 이름을 새긴 참가자들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간간이 칼바람이 부는 대관령의 명물인 눈 쌓인 황태녀장 주변 도로를 달리고 달렸다.

부부 등이 참여하는 10km 쿠플런에는 32쌍이 레이스를 펼쳤으며, 최고령 참가자는 87세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 채형민 기자

부산시, 올해 친환경 전기·수소 저상버스 268대 도입



올해 부산에 친환경 시내버스 268대가 새로 도입된다. 부산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국·시비 보조금 569억원을 들여 전기 저상버스 214대와 수소 저상버스 54대를 대중교통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수소 저상버스는 화석연료 버스와 비교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현재 부산에서 전기버스 461대, 수소 버스 62대 등 친환경 버스 523대가 대중교통으로 운행 중이다.

부산시는 2025년 이후에도 전기버스 241대, 수소 버스 118대를 추가로 대중교통에 도입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수소 버스 21대를 전세버스로 도입하는 사업자에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친환경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대중교통에 전기·수소 저상버스 운행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지호 기자

대구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1천390억 투입

대구시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1천390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특화 단지에 155억원을 들여 글로벌 모터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 또 모빌리티 모터 혁신 기술 육성(27억원), 전자파 장애인시스템 구축(25억원), 특화단지 테스트 베드 구축(49억원)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CAV(카넥티드 자율주행차) 기반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 플랫폼을 구축(45억원)해 자율주행 레벨4 시 힘이 가능하게 하고 미래차 디지털 융합 산업 실증 플랫폼도 구축(110억원)한다.

UAM(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해서는 산업 초기 마중물로 시비 7억원을 투입해 한화시스템과 함께 핵심 기술 개발을 도모한다.



이 밖에 다음 달부터 768억원을 들여

친환경차 6천27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충전기 4천기를 추가 설치한다.

홍준표 시장은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

임 대전환기를 맞아 5대 신산업의 선두

/ 한영준 기자

분야로 UAM 등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며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전국 1위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영준 기자

부천 마을버스 기본요금 최대 150원 인상…성인 1천450원

경기도 부천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1개 노선의 마을버스 기본요금을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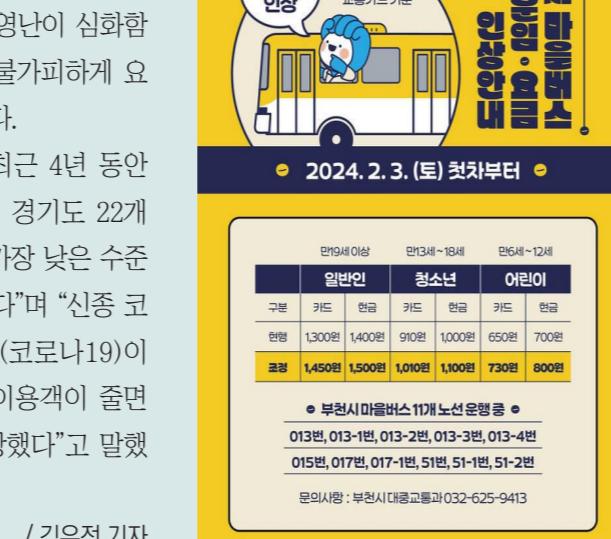
천100원, 어린이 800원이다.

부천시는 2019년 11월 인상 이후 4년 3개월 동안 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했으나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4년 동안 마을버스가 운행 중인 경기도 22개 시·군 가운데 부천은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요금을 유지했다”며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이후 이용객이 줄면서 이번에 요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낼 경우 기본요금은 100원씩 올라 성인 1천500원, 청소년 1



/ 김유정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

*
EPISODE 01

NH농협금융

모든 것이 *everything* 돈이 되는 세상 *makes money*

NONGHYUP BANK PRESENTS

금융서비스부터 생활서비스까지
모아주고 아껴주고 쓸수록 돈되는 디지털 뱅킹이니까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답



조건없이 이체수수료 0원에
다양한 예적금 우대금리까지

현금처럼 사용하는 **NH포인트**
환율로 돈버는 **내맘대로외화BOX**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폰**부터
화딜 등 **쇼핑할인**까지 다양한 서비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5076(2023.1.23 ~ 2024.10.31)

NH농협은행

화마 삼킨 서천시장, 넉달전 소방점검서 “매우 악호” 판정

서천군 “지적사항 시정완료”…전문가 “완벽한 예방 힘들지만, 점검 강화해 위험 대비해야”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난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불과 넉달 전에 실시된 소방점검에서 최상의 안전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천시장은 작년 9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이틀간 실시한 소방점검에서 ‘매우 악호’를 의미하는 안전등급 ‘A’를 받았다. 매우 악호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의미한다.



서천특화시장 앞에서 회의하는 감식반

전통시장 안전등급은 최상위인 A부터 ‘심각한 결함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최하위 E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화재와 같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이전 점검인 2020년 5월에도 서천시장에 A 등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충남 서천군과 관할 소방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실시한 합동 안전 점검에서는 ▲ 철골 표면 부식 ▲ 화재 시 열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내화 피복’ 탈락 ▲ 철근 노출 ▲ 마감재 결합 등이 지적 사항에 올랐으나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됐다.

국가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는 한 국전기안전공사 충남서부지사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서천시장 건물에 대한 전기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준 것으로 나온다. 이같은 점검 결과에도 서천시장이 대형 화재에 휩싸이고, 경찰·소방당국의 합동 감식결과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앞서 진행된 각종 점검이 촘촘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 아

니나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던 한국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화재 자동화 탐지설비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연락해주는 시설 등이 시장에 설치됐고, 이것이 양호하게 작동하는 것도 확인해서 A 등급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에서 A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불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점검 범위 내에서는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천군 관계자도 “이달 초에도 합동점검을 벌여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다 했다”며 “당시 위험 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소방 전문가들은 안전 점검만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있을지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점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신재일 기자



제주 용두암 찾은 중국 단체관광객

중국 난징시민 87% ‘제주 방문 계획 있다’

3박 4일 가장 선호

제주에서 직행 항공편으로 오갈 수 있는 중국 장쑤성 난징 시민의 제주 관광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10월 5~17일 난징 시민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제주 방문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86.8%인 310명이 ‘예’라고 답했고, 13.2%인 47명만 ‘아니오’를 선택했다.

제주 여행 선호 체류 기간은 3박 4일 30.8%(110명), 2박 3일 22.4%(80명), 4박 5일 22.1%(79명) 등으로 짧은 편이었다. 일주일 이상 장기 체류를 원하는 비율은 12.9%(46명)였다.

제주 체류 기간 지출 의향 경비는 8천~10만 원(약 149만~186만원)이 23.8%(8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만~1만2천 원(약 186만~223만원) 21.3%(76명), 5천~8천 원(약 93만149만원) 16.8%(60명), 1만2천~1만5천 원(약 223만~279만원) 16.8%(60명) 순이

다.

제주 여행 시 선호 쇼핑 품목은 화장품 37.5%(134명), 의류·잡화 17.4%(62명), 인삼·한약재 15.7%(56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 관광 매력은 다양한 관광자원 69.7%(249명), 여행안전·치안 49.3%(176명), 가까운 거리 45.7%(163명), 쇼핑·면세점 43.7%(156명), 뚜렷한 사계절 38.4%(137명), 여행 경비 38.1%(136명), 여행지 위생·보건 35%(125명), 무비자 입국 21%(75명) 등이다.

제주연구원은 여행 경비 내에 제주의 다양한 자연 자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일정을 포함하고 일부 문화 체험이 가능한 체험 행사로 구성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제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쑤성의 성도 난징시의 상주인구는 약 1천만명이다. 현재 제주~난징 직항노선이 2개 항공사에서 주 8편 운항 중이다. / 윤현성 기자

횡성군,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시 최대 30만원 지원

자진 반납 시 20만원
실제 운전 증명 시 10만원 추가

강원 횡성지역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횡성군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지급하던 10만원을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금 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올해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실효 처리된 것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준다.

여기에도 자동차 책임 보험증권을 통해 실제 운전을 계속해온 것을 증명하면

횡성사랑카드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자동차 책임 보험증권을 통한 실제 운전 등 두 가지 조건 총족 시 3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박용균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시 고령층의 치사율이 높은 만큼 면허 반납



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며 “고령층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일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문석현 기자

르노코리아, 스타필드 수원에 새 전시장…첫 복합쇼핑몰 입점



27일 열린 르노코리아 수원 스타필드점 개점식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들어선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에 새 전시장 ‘르노코리아 스타필드 수원점’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첫 르노코리아 전시장이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하이브리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신차 출시

준비와 함께 이 전시장을 통해 브랜드 강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스타필드 수원점에는 르노 브랜드의 새 글로벌 매장 정체성(SI) 콘셉트 ‘rnlt’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됐다.

‘스몰 앤 팬시’라는 공간 테마 아래 도심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상담과 계약, 출고 및 시승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르노코리아 영업마케팅본부 엠마누엘 알나와킬 본부장은 “르노코리아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SI 콘셉트를 전국 영업 전시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백성훈 기자

‘서울 편입 논의’ 놓고 구리시-민주당 시의원 충돌

민주당 시의원들 “서울 편입 논의로 GH 구리 이전에 제동 걸렸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들이 “서울 편입” 논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원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의 구리 이전 계획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며 백 시장을 비판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시의원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 5명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 “서울시 편입과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며 백 시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백 시장이 국민의 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해 GH 구리 이전에 제동이 걸렸다”며 “졸속 정책 피해가 고스란

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산하 최대 공기업인 GH는 2021년 협약에 따라 구리시 이전을 추진, 4천 352억원을 들여 토평동에 업무시설과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편입 논의에 GH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고, 구리시는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GH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시의원들은 “신중한 검토 없이 서울 편입을 추진한 백 시장의 ‘졸속·부실·인기 영합 행정’을 규탄한다”며 “GH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구리시는 성명에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리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오도하는 성명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 전담반(TF)을 구성해 서울시와 협동으로 편입에 따른 행·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GH 이전 문제에 대해 김 국장은 “서울 편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대로 이전 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경기도에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다음 달 1일 여성 행복센터에서 GH 이전 실무협의회도 열 예정이다.

/ 조유진 기자

양방향 문자 하나면 쓰던 사무실 번호로
고객과 소통을 더 편리하게!

메시징DX
양방향 문자 서비스

문자도 사진도 실시간으로 주고 받고, 받은 답변은 알아서 데이터로 정리까지!
제작자: kt enterprise | 문의처: 080-258-0303

양방향 문자 | kt enterprise | 문의처: 080-258-0303
KT 화면 사용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수원특례시 포함 240여개 지역 및 기관

kt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 청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측정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프로야구 개막 52일 앞두고 국외훈련 출발…KT만 부산서 1차캠프



LG 트윈스, 2023 스프링캠프 종료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을 52일 앞두고 9개 구단이 국외에 스프링캠프를 차린다. kt wiz만이 1차 동계 훈련을 부산 기장에서 치르고, 2차는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실전 위주로 진행한다.

먼저 29일에는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가 각각 호주 시드니, 미국 애리조나주로 떠난다.

30일에는 SSG 랜더스(미국 플로리다 주), 한화 이글스(호주 멜버른), 삼성 라이

온즈(오키나와현), LG 트윈스·NC 다이노스(이상 애리조나주), KIA 타이거즈(호주 캔버라) 6개 구단이 한꺼번에 출국해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 자이언츠는 31일 괌으로 이동한다.

명목상 비활동기간(12월~이듬해 1월)이 끝나는 2월 1일을 기점으로 오는 3월 23일 정규리그 개막전까지 10개 구단은 52일간 올해 농사를 좌우할 동계 훈련과

시범 경기에서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자율 훈련을 내세워 이미 각 구단의 여선수가 미국 또는 일본에 먼저 넘어가 따뜻한 환경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정규리그는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졌다.

11월에 열리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를 준비하고, 이후 변화로 우천 경기 취소가 급증하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1차 체력·팀 전술 훈련으로 기량을 가다듬은 7개 구단은 일본과 대만으로 이동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LG와 NC는 미국에서만 머물다 3월 초에 귀국하며 두산·KIA·한화 3개 구단과 롯데는 일본 미야자키현과 오키나와현으로 북상한다.

삼성, kt, KIA, 한화, 롯데 5개 구단은 '오키나와 리그'로 실력을 겨루한다. SSG(자이현), 키움(가오송)은 대만에 2차 베이스캠프를 마련한다.

3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지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개막전에 앞서 지난해 통합 우승팀 LG와 고척돔의 주인 키움은 3월 17~18일 다저스, 샌디에이고와 연습 경기를 벌인다.

아울러 새로운 전임 감독이 지휘할 국가대표팀(팀 코리아)도 다저스, 샌디에이고와 이틀간 엇갈려 평가전을 치르고 개막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 최병훈 기자



셀카 촬영하는 올스타 선수들

프로배구 30일 재개…‘봄배구’ 윤곽 가를 5라운드 경쟁 시작

프로배구가 꿀맛 같은 올스타 휴식기를 마치고 정규리그 일정을 다시 이어간다.

도드람 2023-2024 V리그는 30일 대한항공·현대캐피탈(인천 계양체육관), 한국도로공사·흥국생명(김천체육관)의 경기로 5라운드의 문을 연다.

4라운드가 끝난 뒤 열흘 넘게 전력을 재정비한 남녀 14개 팀은 '봄 배구' 티켓을 향해 5~6라운드에서 치를 12경기에 사활을 건다.

남자부에서는 최하위 KB손해보험을 제외하고 6개 팀이 모두 포스트시즌을 노

릴 만한 역대급 훈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두 우리카드(44점)와 6위 현대캐피탈(32점)의 승점 차는 12에 불과하다.

특히 5연패 수렁에 빠진 우리카드와 2위 대한항공(43점), 3위 삼성화재(40점)는 4점으로 줄었고, 4라운드 전승(6승)의 신바람을 낸 4위 OK금융그룹은 삼성화재는 1점 차로 쫓아 상위권은 그야말로 안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3연승 콧노래를 부르고 4라운드를 마친 5위 한국전력(37점)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포스트시즌 진출 다툼은 6라운드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봄 배구를 꿈꾸는 6개 팀에는 앞으로 매 경기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만큼 4라운드까지의 상대 전적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캐피탈이 이번 시즌 4전 전패에 승점 1을 얻은 데 그친 대한항공은 5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를 따낸다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우리카드는 1승 3패로 밀린 OK금융그룹, 삼성화재를 따돌리면 1위 수성의 자신감을 되찾는다.

한국전력은 우리카드(1승 3패)를, 삼성화재는 한국전력(1승 3패)을 각각 넘어야 포스트시즌에 가까워진다.

여자부는 남자부와 달리 일정한 격차를 유지한 채 1~3위 체제가 공고한 양상이다. 현대건설(58점)이 공수에서 압도적인 조직력을 앞세워 선두를 질주하고, 흥국생명(50점)이 2위로 현대건설을 추격 중이다. 3위는 흥국생명에 7점 뒤진 GS칼텍스다.

현대건설은 흥국생명과 2승 2패로 팽팽했을 뿐 나머지 팀은 어려움 없이 승점을 챙겼다. 흥국생명에도 5세트에서 두 번 째 1점씩은 챙겼다.

흥국생명은 새로 영입한 외국인 선수 윌로우 존슨(25·등록명 윌로우)에게 기대를 건다. 윌로우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시대를 풍미한 신인 투수 랜디 존슨의 딸로 화제에 올랐다.

호시탐탐 역전을 노리는 GS칼텍스는 2위 추격보다 4위 정관장(36점)을 밀어내는 게 먼저다. V리그에서 정규리그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 이하면 준플레이오프 단판 대결이 벌어진다.

벌써 세 시즌 연속 17연패를 반복한 폐퍼저축은행은 하루빨리 이겨야 오명을 떨쳐낸다. 폐퍼저축은행은 3번 더 지면 2012-2013 시즌 KGC인삼공사(현 정관장)의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과 동률을 이룬다.

/ 오현성 기자

‘토너먼트 모드’ 클린스만호…사우디전 맞춰 훈련시간 첫 변경



클린스만호가 아시안컵 ‘토너먼트 모드’에 들어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27일(현지시간) “경기 시간이 늦은 관계로 내일과 모레는 오후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쯤 훈련을 진행한 클린스만호는, 이제부터는 당분간 오후에 훈련할 예정이다.

16강 경기 시간에 맞춰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클린스만 감독은 원래 ‘아침형 인간’이다. 국내에서도 대부분 훈련을 오전에 시행했다. 이런 ‘루틴’은 카타르 도하에 온 뒤에도 이어졌다. 클린스만호가 치른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이곳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에 킥오프했기 때문에 굳이 훈련 시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사우디와 16강전은 비교적 늦은 시각인 오후 7시에 �ick오프한다.

16강전 8경기 중 4경기는 오전 2시 30분, 나머지 4경기는 오후 7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였는데, 한국-사우디전이 뒤 시간대 경기로 배정된 것이다.

이에 클린스만호도 훈련 시간을 오후로 늦추게 됐다. 28일 훈련은 오후 4시께 시작한다. 경기 전날에 진행되는 29일 훈련도 비슷한 시간대에 시작될 거로 보인다.

장소는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으로 그

대로다.

한국은 1956년 제1회 대회, 1960년 제2회 대회 2연패 이후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

조별리그에서는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출전을 거듭해 우승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여전히 우승을 약속하며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을 바라고 있다.

/ 손지혁 기자

미국 통계업체, 한국 파리올림픽서 전체 메달 23개로 10위 예상

우리나라가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총개수 순위 10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널슨 산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올림픽 개막을 6개월 앞두고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를 합쳐 23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레이스노트의 지난해 7월 예상치와 비교하면 금메달과 은메달은 1개씩, 동메달은 4개 줄었으며 순위는 그대로다.

그레이스노트는 “2020 도쿄 올림픽은 한국에 실망스러운 대회였다”며 “한국은 도쿄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를 합쳐 20개의 메달을 따내 금메달 수와 전체 메달 수 모두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평했다.

/ 박순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열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악뮤가 그린 무해하고 힙한 음악 세계…“10년 했지만 이제 시작”

데뷔 10주년 맞은 남매 듀오, 4년 만 전국투어 콘서트 ‘악뮤토피아’

남매 듀오 악뮤는 지난 27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전국투어 ‘악뮤토피아’에서 데뷔 음반 타이틀곡 ‘200%’를 부른 뒤 “10년간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도 이렇게 웃으며 따라 불러주시는 걸 보니 전혀 질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악뮤는 2024년 새해를 콘서트로 연다는 점이 감회가 새로운 듯 “우리가 이전 연도를 정리하고 다음 연도의 계획을 짜는 시기인데, 이 자리에 모여 같이 기운을 나눈다는 게 의미 있다”고도 했다.

오빠 이찬혁과 동생 이수현으로 이뤄져 가요계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남매 듀오인 이들은 지난 2012~2013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시즌 2’에서 혜성같이 등장해 우승을 거머쥔 뒤 2014년 정식 데뷔했다.

이찬혁이 써 내려간 쌥쌀하거나 혹은 달큰한 가사에 이수의 맑고 깨끗한 보컬이 얹어지면서 악뮤는 ‘200%,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오랜 날 오랜 밤’, ‘러브 리’(Love Lee) 등 술한 히트곡을 내놨다.

워낙 어릴 때 데뷔했기에 10년이 지났어도 이들은 여전히 20대 중·후반이다.



남매 듀오 악뮤(AKMU)

이번 전국투어 ‘악뮤토피아’는 지난 2019~2020년 ‘형해’ 이후 약 4년 만의 콘서트다. 공연명 ‘악뮤토피아’는 악뮤와 ‘유토피아’를 합친 말로, 악뮤만이 만들 수 있는 이상향의 세계라는 뜻이다.

악뮤는 이에 걸맞게 꽃, 명굴, 베섯 묘양 조형물이 어우러진 환상의 공간을 무대 위에 구현해냈다.

특히 이찬혁이 일상 속 평범한 사물 혹은 경험에서 뽑아낸 섬세하면서도 번뜩이는 가사는 무대마다 가슴에 꽂혔다.

데뷔 초 악뮤의 트레이드 마크 같았던 ‘다리꼬지마’ 같은 포크풍 음악에서 발라드(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와 트로피컬 하우스(다이노소

를 함께 부르자 장내는 순식간에 후끈 달아올랐다.

악뮤는 남매다운 ‘찰떡궁합’을 마음껏 선보이며 라이브 밴드의 반주에 맞춰 ‘물 만난 물고기’, ‘째깍 째깍 째깍’, ‘고래’ 등을 들려줬다.

특히 이찬혁이 일상 속 평범한 사물 혹은 경험에서 뽑아낸 섬세하면서도 번뜩이는 가사는 무대마다 가슴에 꽂혔다.

데뷔 초 악뮤의 트레이드 마크 같았던 ‘다리꼬지마’ 같은 포크풍 음악에서 발라드(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와 트로피컬 하우스(다이노소

어·DINOSAUR)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스펙트럼도 듣는 이를 즐겁게 했다.

악뮤가 10년 동안 그려나간 무해하면서도 힙(HIP·멋진)한 음악 세계가 남매의 목소리로 한 획 한 획 그려지는 듯했다.

‘첫 맞짱으로 엄마의 속상함을 산 5학년 꼬마’(맞짱) 혹은 ‘공룡 꿈에 뛰어들어온 어린이’(다이노소어)가 10년 차 뮤지션으로 거듭나는 성장 영화 같기도 했다.

이찬혁은 “지난 10년 동안 감사했고, 앞으로 10년·20년 이후까지 우리가 좀 더 해 먹어 보겠다”고 장난스레 포부를 밝혔다.

이수현도 “(이번 투어를 통해) 내가 살 아 있는 의미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이 생각난 것 같다”며 “콘서트를 통해 생생한 기억과 에너지를 채웠다. 데뷔 10주년인 만큼 금방 (또 다른) 콘서트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고 귀띔했다.

지난 2022년 솔로 앨범을 발표한 이찬혁은 이번 공연에서는 해당 음반 수록곡으로는 ‘파노라마’ 한 곡만 들려줬다. 그는 기회가 되면 솔로 콘서트를 열고 싶다며 음악적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 이정우 기자



(여자)아이들 민니(좌)와 우기(우)

(여자)아이들, 건강문제로 일정 중단 기자간담회도 취소

오는 29일 정규 2집 발매를 앞둔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민니와 우기가 건강 문제로 일정을 중단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7일 “전날 민니·우기는 발열 증상과 편두통 호소 등 캔디션 난조로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 진의 진단에 따라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과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큐브는 “기자 간담회는 아티스트 건강 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자리를 마련해 연락드리겠다”고 알렸다. / 백서연 기자

최고의 크리에이터 뽑는 오디션 ‘구독왕’, 2월 첫선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구독왕’을 내달 2일 처음 방송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독왕’은 200팀의 크리에이터들이 우승상금 1억 원을쟁취하기 위해 경합하는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대세 크리에이터 엔조이커플, 진용진, 히밥, 랄랄, 곽범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2월 2일 오후 11시 첫 방송.

/ 양희진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김호중에게 곡 선물



안드레아 보첼리와 김호중

김호중은 오는 3월 KBS 70인조 교향악단과 여는 클래식 단독쇼에서 이 곡을 선보이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안드레아 보첼리 재단의 아시아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등

보첼리와의 인연이 깊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김호중은 ‘트바로티’(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어)로 불리며 다양한 장르로 활동하고 있다.

/ 한민수 기자

차은우, 내달 첫 솔로 음반 뮤비에 올리비아 핫세 딸 출연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첫 솔로 음반 뮤직비디오에 배우 올리비아 핫세의 딸이 출연한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8일 “차은우의 첫

솔로 앨범이 2월 15일 발매된다”며 “최근 미국에서 배우 인디아 아이슬리와 뮤직비디오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디아 아이슬리는 올리비아 핫세의 딸로 영화 ‘룩 어웨이’ 등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다.

차은우는 내달 1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팬 콘서트에서 음반에 수록된 신곡 무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 공연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팬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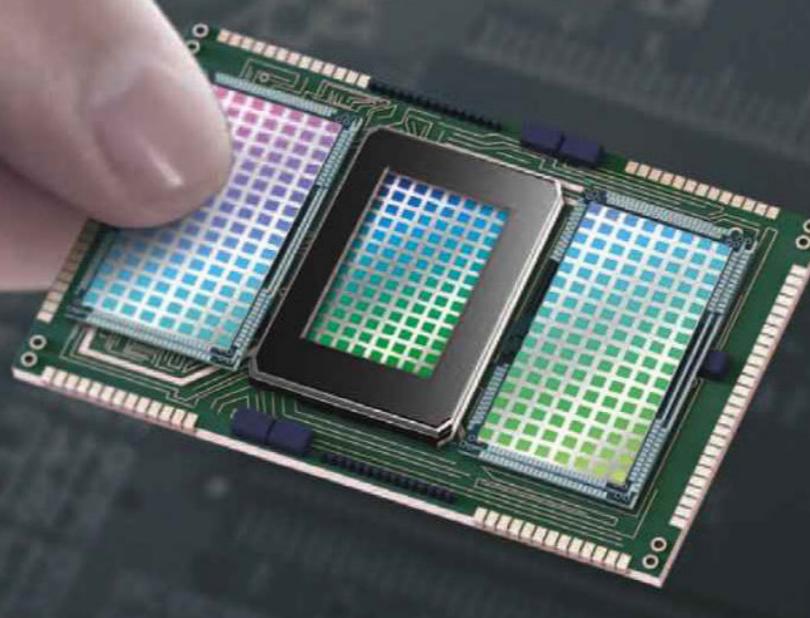
/ 노건우 기자

대한민국 지식재산은 기술경찰이 지킨다!

최근 5년
해외 기술유출 피해액 25조원
해외 기술유출 건수 93건

특허청의 심사관 출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수사관들이 해외 기술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관련된 범죄를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지식재산을 보호합니다

지식재산침해 신고상담센터 1666-6464



ESG 이로운
세상을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